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2. 단어 (문제)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23004-0033]

0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가)~(다)의 형태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가리킨다. 형태소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오늘은 꽃잎이 휘날렸다.
 (나)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다) 그곳은 아직도 많이 춥니?

- ① (가)는 4개의 실질 형태소와 6개의 형식 형태소로 분석된다.
 ② (가)의 ‘휘날렸다’에는 자립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나)의 ‘살-’과 ‘있-’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④ (나)의 ‘-다가’, ‘-면’, ‘-르’, ‘-다’는 어미이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⑤ (다)에는 3개의 자립 형태소와 5개의 실질 형태소가 존재한다.

[23004-0034]

02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단어의 구조를 분석할 때, 단어 형성의 각 단계의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를 그 구성의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큰부리새’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부리’와 ‘새’, ‘큰부리’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과 ‘부리’, ‘큰’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크-’와 ‘-(으)ㄴ’이다. 셋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는 각 단계에서 분석되는 직접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그 역할에 따라 어근과 접사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단한다. ‘큰부리새’의 경우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인 ‘큰부리’와 어근인 ‘새’이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① ‘눈높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눈’과 어근 ‘높이’이므로 합성어이다.
 ② ‘팔죽집’은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팔죽’과 어근 ‘집’이므로 합성어이다.
 ③ ‘미담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미담-’과 접사 ‘-이’이므로 파생어이다.
 ④ ‘겉넓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겉’과 어근 ‘넓이’이므로 합성어이다.
 ⑤ ‘장대높이뛰기’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장대높이’와 어근 ‘뛰기’이므로 합성어이다.

[23004-0035]

03 <보기>를 바탕으로 접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접두사와 접미사는 다양한 품사의 어근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다. 접두사는 어근에 어휘적 의미를 더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접미사는 파생 과정에서 어근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경우가 있으며,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 ① ‘덧저고리, 덧대다’를 보니 접두사 ‘덧-’은 명사에도 결합하고 동사에도 결합하는구나.
- ② ‘군말, 군살’을 보니 접두사 ‘군-’은 ‘쓸데없는’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구나.
- ③ ‘잠꾸러기, 욕심꾸러기’를 보니 어근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하면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지는구나.
- ④ ‘늦추다, 낮추다’를 보니 접미사 ‘-추-’는 어근 ‘늦-’과 ‘낮-’에 사동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구나.
- ⑤ ‘꽃과일, 헛디디다’를 보니 접두사 ‘꽃-’과 ‘헛-’이 어근에 결합해도 파생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지 않는구나.

[23004-0036]

0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합성어는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뉩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명사’, ‘관형사+명사’, ‘부사+부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와 같이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에서 단어들 배열되는 일반적인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가리키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명사’, ‘용언의 어간+용언의 어간’과 같이 어근의 결합 방식이 우리말 문장에서 단어들 배열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어긋난 합성어를 가리키지요. 그렇다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사례를 말해 볼까요?

학생:

㉠

- ① ‘곤잘’은 ‘부사+부사’의 구성을 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새신랑’은 ‘관형사+명사’의 구성을 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덮밥’은 ‘용언의 어간+명사’의 구성을 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이른바’는 ‘용언의 관형사형+명사’의 구성을 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⑤ ‘끓주리다’는 ‘용언의 어간+용언의 어간’의 구성을 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23004-0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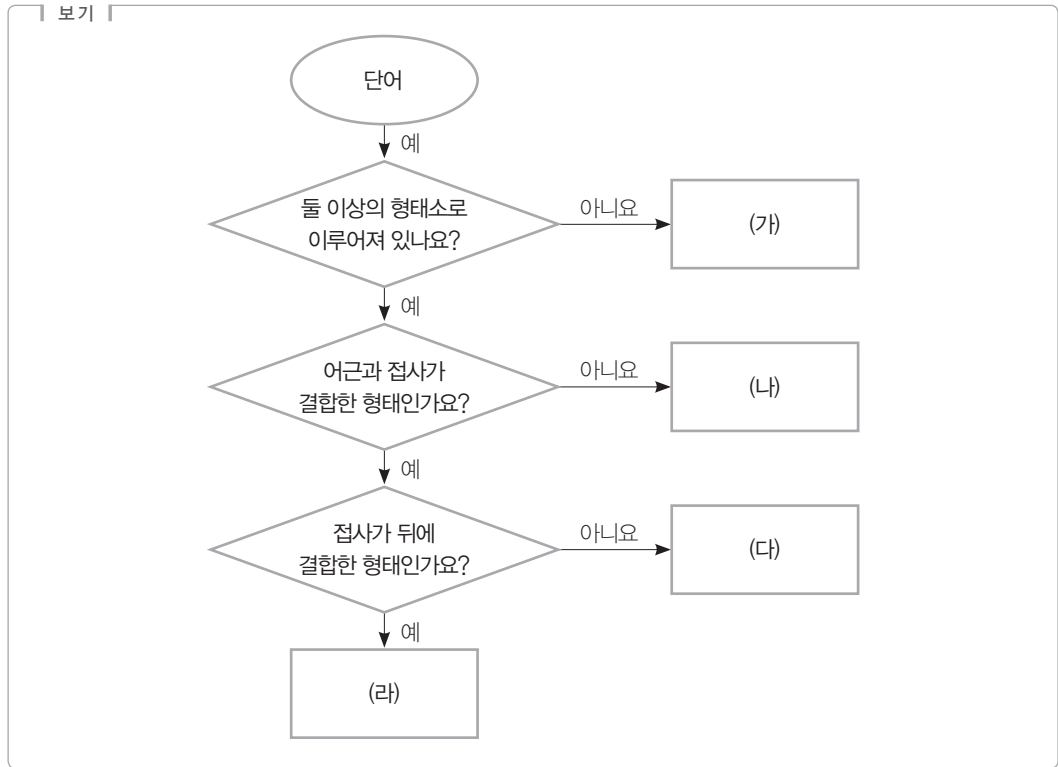
05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주격 조사 ‘이’와 ‘가’는 문법적 기능은 같지만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가 사용되고, 모음일 때는 ‘가’가 사용된다. 어떤 이형태는 앞에 오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나 모음이나 혹은 앞에 오는 어간의 모음이 ‘ㅏ, ㅑ’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분포가 달라지는 음운론적 조건을 따른다. 이처럼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교체되는 이형태를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한편 음운론적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에 따라 교체가 실현되는 이형태도 존재하는데, 형태론적 이형태는 앞에 오는 말의 형태에 따라 교체가 실현되는 이형태이다.

- ① — 나는 책을 읽는다.
— 어제 나무를 심었다.
- ② — 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
— 작년 소풍날은 날씨가 긱었다.
- ③ — 도착하여서 연락해라.
—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 ④ —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 저 웃은 내 것과 다르다.
- ⑤ — 내 손을 꼭 잡아라.
— 천천히 먹어라.

[23004-0038]

06 <보기>의 (가)~(라)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나)	(다)	(라)
①	구름	돌다리	민무늬	높푸르다
②	하늘	논밭	맨손	정답다
③	나비	일찍이	군식구	슬기롭다
④	나무	곳곳	힘세다	놀이
⑤	강물	하얀색	밤낮	넓이

[23004-0039]

01 <보기>의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에 소속된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 부류에 동시에 소속되는 일이 있는데 이를 ㉠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그는 합리적이다.’에서와 같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는 합리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에서와 같이 명사인 ‘사고’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또 ‘굳다’의 경우 ‘밀가루 반죽이 굳는다.’에서처럼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굳은 결심’에서처럼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 ① 그는 공을 차고 있다.
 └ 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
- ② 사과 다섯 개를 샀다.
 └ 돌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 ③ 주는 만큼 받는다.
 └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④ 이긴 정말이야.
 └ 그 약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형이 동생보다 발이 더 크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23004-0040]

02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용언을 규칙 용언이라고 하고, 어간이나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굽다’의 경우 ‘굽고, 굽으니, 굽어’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므로 규칙 용언입니다. 물론 ‘(과일을) 갈다’는 ‘갈다, 가니’와 같이 어간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해도 ‘ㄹ’을 어간 말음으로 갖는 용언의 활용은 항상 같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 용언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굽다’의 경우 ‘굽고, 구우니, 구워’와 같이 어간의 형태가 변하며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지요. 다음 단어가 규칙 용언인지 불규칙 용언인지 판단해 볼까요?

(집을) 짓다	(가슴에 비밀을) 묻다	(밥을) 푸다
(꽃을) 뽑다	(국어를) 공부하다	

학생:

㉠

- ① ‘짓다’는 ‘지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므로 불규칙 용언입니다.
- ② ‘묻다’는 ‘묻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용언입니다.
- ③ ‘푸다’는 ‘퍼’와 같이 활용할 때 어미의 형태가 변하므로 불규칙 용언입니다.
- ④ ‘뽑다’는 ‘뽑아’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용언입니다.
- ⑤ ‘공부하다’는 ‘공부하여’와 같이 활용할 때 어미의 형태가 변하므로 불규칙 용언입니다.

[23004-0041]

03 <보기>의 ㉠~㉤에 쓰인 보조 용언의 기능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안에서 독자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언을 본용언, 본용언과 함께 쓰여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쓰여 다양한 기능을 한다.

- ㉠ 나는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썼다.
- ㉡ 나는 새로 장만한 옷을 입어 보았다.
- ㉢ 아이들이 깔깔 웃어 댄다.
- ㉣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 ㉤ 동생이 간식을 다 먹어 버렸다.

- ① ㉠의 보조 용언 '나다'는 '책을 읽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② ㉡의 보조 용언 '보다'는 '옷을 입는'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③ ㉢의 보조 용언 '대다'는 '웃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④ ㉣의 보조 용언 '싶다'는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⑤ ㉤의 보조 용언 '버리다'는 '간식을 먹는' 행동의 지속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23004-0042]

04 다음은 부사격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단어 중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 조사들과 달리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이유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이 단순히 격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적인 것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또 부사격 조사는 같은 형태라도 쓰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부사격 조사 '에'는 문맥에 따라 ㉠처소, ㉡시간, ㉢이유나 원인, ㉣수단, ㉤기준이 되는 대상 또는 단위 등을 나타낸다.

- ① ㉠: 그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있다.
- ② ㉡: 오늘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
- ③ ㉢: 나는 요란한 천둥소리에 잠을 깼다.
- ④ ㉣: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
- ⑤ ㉤: 나는 하루에 네 번씩 이를 닦는다.

[23004-0043]

05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지유는 옛 친구를 만났다.
 (나) 이 두 사람이 우리 반 대표로 뽑혔다.
 (다) 그것 말고 다른 물건을 좀 보여 주세요.
 (라) 이 모든 현 옷들을 다 갖다 버려라.

- ① (가)의 ‘옛’을 보니 관형사는 수식하는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② (나)의 ‘이’를 보니 지시 관형사가 다른 관형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구나.
 ③ (나)의 ‘두’를 보니 관형사는 수식하는 체언의 수량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④ (다)의 ‘다른’을 보니 관형사의 형태가 용언의 활용형과 같은 경우도 있구나.
 ⑤ (라)의 ‘이 모든 현’을 보니 여러 개의 관형사를 나열할 때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맨 뒤에 놓이는구나.

[23004-0044]

06 ㉠, ㉡의 사례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의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 중심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확장되어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 주변 의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손’은 인체의 한 부분을 뜻하는데 이것이 ‘손’의 중심 의미이다. 그런데 ‘손’이 ‘손(노동력)이 모자라다.’, ‘손(쌈씀이)이 크다.’ 등 여러 상황에 옮겨 쓰이면서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가 주변 의미이다.

- ① 다리 { ㉠: 그는 축구를 하다 다리에 쥐가 났다.
 ㉡: 이 식탁은 다리가 짧아 사용하기 불편하다.
 ② 먹다 { ㉠: 나는 자꾸 기침이 나서 약을 먹었다.
 ㉡: 숨이 물을 먹어서 무겁다.
 ③ 살다 { ㉠: 그는 백 살까지 살았다.
 ㉡: 잿더미에 불씨가 아직 살아 있다.
 ④ 입 { ㉠: 아이가 밥을 먹으려 입을 벌렸다.
 ㉡: 아들이 떠나면서 집에 입이 하나 줄었다.
 ⑤ 뼈 { ㉠: 형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다.
 ㉡: 이 작품의 뼈만 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22004-0033]

01

〈보기〉의 ‘제시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제시어] 돋다(도와), 벗다(벗어), 잡다(잡아),
흐르다(흘러서), 이르다(이르러서), 일하다(일하여)

[분류 과정]

활용할 때 어간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용언인가? ⇨ ㉠
 ↓ 아니요 예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용언인가? ⇨
 ↓ 아니요 예

㉡

	㉠	㉡
①	돋다, 흐르다	벗다, 잡다
②	돋다, 흐르다	이르다, 일하다
③	벗다, 잡다	돋다, 흐르다
④	벗다, 잡다	이르다, 일하다
⑤	이르다, 일하다	벗다, 잡다

[22004-0034]

02

〈보기〉에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합성어 중에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 ‘명사+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등과 같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것도 있지만,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 ‘용언 어간+명사’, ㉤ ‘용언 어간+용언 어간’, ‘비자립적 어근+명사’ 등과 같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것도 있다.

- ① ㉠: 논밭, 보슬비
- ② ㉡: 젊은이, 건널목
- ③ ㉢: 들어가다, 찾아보다
- ④ ㉣: 꺾쇠, 덮밥
- ⑤ ㉤: 굽주리다, 뛰놀다

[22004-0035]

03 <보기>의 ㉠~㉣을 통해 '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누나가 교과서를) ㉠ 들고 가다
- (선생님에게 정답을) ㉡ 되묻다
- (그가 학문의 길을) ㉢ 걸어가다
- (오늘은 날씨가) ㉣ 춥지 않다
- (오빠가 학교에) ㉤ 가 보다

- ① ㉠: 두 개의 동사를 어미 '-고'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② ㉡: 두 개의 동사를 어미의 결합 없이 연결한 말로, 합성 용언이다.
 ③ ㉢: 두 개의 동사를 어미 '-어'로 연결한 말로, 합성 용언이다.
 ④ ㉣: 두 개의 형용사를 어미 '-지'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⑤ ㉤: 두 개의 동사를 어미 '-아'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22004-0036]

0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조사는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주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조사에는 격 조사(주격·목적격·보격·서술격·관형격·부사격·호격)와 보조사 등이 있는데, 문장에서 이들 조사는 둘 이상이 연속해 쓰이기도 한다.

- 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 보조사, 보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② 우리 오빠에게도 꿈이 있었다. → 부사격 조사, 보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③ 인간이 빵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 보조사, 부사격 조사, 보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④ 우리는 해외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⑤ 그는 내 걱정을 기우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 두 개의 부사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22004-0037]

05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탐구 주제] 다음 밑줄 친 말을 탐구하여 공통점을 찾아보자.

- 외부인에 의해 운동장의 잔디가 짓밟히고 있었다.
- 우리는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았다.

[탐구 과정] 형태소 분석을 하면 ‘짓밟히고’는 ‘짓-+밟-+-히-+-고’로, ‘휘날리는’은 ‘휘-+날-+-리-+-는’으로 분석된다.

[탐구 결과]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짓밟히고’와 ‘휘날리는’은 공통적으로

[A]

- ①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②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③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④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⑤ 다른 단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말이다.

[22004-0038]

06 <보기>를 참고할 때, '준말'의 표기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40항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드는 기준으로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를 들 수 있다.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ㄱ], [ㄷ], [비]이면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익숙하지 못하다'가 줄어든 '익숙지 못하다'가 그 예이다.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ㄱ], [ㄷ], [비]가 아니면 'ㅎ'만 남는다. 'ㅎ'이 남는 경우에는 그 'ㅎ'과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뀐다. '추진하도록'이 줄어든 '추진토록', '청하건대'가 줄어든 '청컨대'가 그 예이다.

한편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가 줄어든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도 부사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여튼'은 부사이므로 '하영든'으로 적지 않는다. 반면 용언의 활용형 '이렇든', '저렇든'은 부사가 아니므로 '이러튼', '저러튼'으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본말	준말	판단
생각하건대	a. 생각건대 b. 생각컨대	b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생각하건대'에서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ㄱ]이기 때문이다. ①
실천하도록	a. 실천도록 b. 실천토록	b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실천하도록'의 '하'에서 'ㅎ'만 남아 그 'ㅎ'과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뀌기 때문이다. ②
어떠하다	a. 어떻다 b. 어떠타	b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어떠타'가 어원적으로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왔지만 부사이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③
아무러하든	a. 아물든 b. 아무튼	a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아무러하든'의 '하'에서 'ㅎ'만 남아 그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④
그러하든	a. 그렇든 b. 그러튼	a가 준말의 옳은 표기이다. '그렇든'은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부사이기 때문이다. ⑤

[22004-0039]

0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단위를 층위적으로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둘로 쪼개어져 나오는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가령 ‘통닭구이’는 오른쪽과 같이 층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통닭구이’는 ‘통닭’과 ‘구이’로 먼저 분석된다. 그리고 ‘통닭’은 다시 접사 ‘통-’과 어근 ‘닭’으로 분석되고, ‘구이’는 다시 어근 ‘굽-’과 접사 ‘-이’로 분석된다. 즉 ‘통닭구이’는 ㉠ ‘접사+어근+어근+접사’로 분석되는 단어이며, [[통-+닭]+[굽-+-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닭구이			
통닭		구이	
통-	닭	굽-	-이

- ① 나들이옷
- ② 미닫이문
- ③ 살얼음판
- ④ 닭고기덮밥
- ⑤ 찻고추볶음

[22004-0040]

02 <보기>에서 ‘선생님’의 물음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입니다. 가령 ‘그는 예쁜 옷을 샀다.’에서 ‘예쁜’은 ‘옷’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우리는 첫째 주 월요일에 만났다.’에서 ‘첫째’는 ‘주’를 꾸며 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럼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판단해 볼까요?

- ㄱ. 전 세계의 학자가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 ㄴ. 그 사람이 나가더니 두 사람이 들어왔다.
- ㄷ. 웬 까닭인지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
- ㄹ. 그는 빛바랜 모자를 버리고 새 모자를 썼다.
- ㅁ. 당시 온 식구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 ① ㄱ에서 ‘전’과 ‘온갖’은 모두 관형사입니다.
- ② ㄴ에서 ‘그’와 ‘두’는 모두 관형사입니다.
- ③ ㄷ에서 ‘웬’과 ‘다른’은 모두 형용사입니다.
- ④ ㄹ에서 ‘빛바랜’은 형용사이고, ‘새’는 관형사입니다.
- ⑤ ㅁ에서 ‘온’은 관형사이고, ‘같은’은 형용사입니다.

03

[22004-0041]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활동] <자료 1>을 참고하여, ㉠이면서 ㉡인 형태소가 포함된 단어만을 <자료 2>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료 1> 형태소의 종류

(1)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그 /-들/은/ 잘 /익-/-은/했-/ 과일 /을/떡-/-었-/-다
㉠ 의존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그/ -들 / 은 / 잘 / 익- / -은 / 했- / 과일 / 을 / 떡- / -었- / -다

(2)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예 그 /-들/은/ 잘 / 익- /-은/했-/ 과일 /을/떡-/-었-/-다
㉡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예 그/ -들 / 은 / 잘 /익-/ -은 / 했- / 과일 / 을 /떡-/ -었- / -다

<자료 2>

맨손(맨- + 손), 집밥(집 + 밥), 접칼(접- + 칼), 살다(살- + -다), 여닫이(열- + 닫- + -이)

- ① 맨손, 집밥 ② 맨손, 접칼 ③ 접칼, 살다
- ④ 집밥, 접칼, 여닫이 ⑤ 맨손, 살다, 여닫이

[22004-0042]

04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학생이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버스는 느리지만요, 기차는 빠르지요.
 ㉠ ㉡
- (어머니가 아들에게) 빵과 쿠키가 있는데, 커피나 차는 같이 마시고 가야지.
 ㉢ ㉣ ㉤
- (조카가 삼촌에게) 개가 늑대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요, 다른 점이 더 많아요.
 ㉥ ㉦ ㉧ ㉨

보기

- ㄱ. ㉠은 ‘선생님’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이고, ㉡는 ‘삼촌’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이다.
- ㄴ. ㉢은 ‘기차’가 ‘버스’와 대조됨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이고, ㉤은 ‘차’가 ‘커피’와 대조됨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이다.
- ㄷ. ㉢은 ‘빵’과 ‘쿠키’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기 위해 쓰인 말이고, ㉣은 ‘늑대’가 비교의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이다.
- ㄹ. ㉣은 ‘쿠키’가 보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인 말이고, ㉥은 ‘개’가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인 말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2004-0043]

0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를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를 갖기도 한다. 이를 ㉠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그 예로 명사, 조사로 쓰이는 ‘만큼’을 들 수 있다. 즉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에서 ‘만큼’은 명사이지만, ‘나도 그 사람만큼은 할 수 있다.’에서 ‘만큼’은 조사이다.

- ① 나는 옷에 흠이 묻어 썼었다. / 그것은 비밀로 묻어 두었다.
- ② 형의 진짜 속셈이 뭘지 모르겠다. / 이 책은 진짜 지루하다.
- ③ 그는 내게 좋은 친구이다. / 그 이야기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 ④ 여덟에 둘을 더하면 열이 된다. / 모인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
- ⑤ 내일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 우리는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

[22004-0044]

06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지의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합성어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종속 합성어와 대등 합성어로 구분할 수도 있다. 종속 합성어는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대등 합성어는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이 의미상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구분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종속 합성어	㉠	
대등 합성어		㉡

	㉠	㉡
①	<u>어느새</u> 옷이 젖다.	<u>눈비</u> 가 내리다.
②	<u>어느새</u> 옷이 젖다.	사람들이 <u>오</u> 가다.
③	<u>산들바람</u> 이 불다.	<u>눈비</u> 가 내리다.
④	<u>산들바람</u> 이 불다.	사람들이 <u>오</u> 가다.
⑤	<u>눈비</u> 가 내리다.	사람들이 <u>오</u> 가다.



[21004-0029]

01 <보기>의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자료]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이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으면 ㉡의존 형태소로 구분된다. 또한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면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면 ㉣형식 형태소로 구분된다. 단어는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도 단어로 처리한다.

[학습 활동]

“그 새는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었다.”를 형태소로 분석하고, 그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 ① 총 1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 ② ‘그’, ‘새’, ‘우리’, ‘매우’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입니다.
- ③ ‘크-', ‘기쁘-', ‘주-', ‘-었-'은 ㉡이면서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④ ‘그’, ‘새’, ‘우리’, ‘매우’, ‘크-', ‘기쁘-', ‘주-'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입니다.
- ⑤ ‘는’, ‘에게’, ‘을’은 ㉡이면서 ㉣이고,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1004-0030]

02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덧붙이는 부분으로, 어근의 앞에 붙는 것을 접두사,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한다. 어떤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둘로 쪼개어져 나오는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며, 이를 통해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말의 단어 구조에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쪼개었을 때 둘 다 어근인 합성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쪼개었을 때 둘 중 하나가 접사인 파생어가 있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통틀어 복합어라고 한다. 단어를 만들 때는 합성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파생이 되거나, 파생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합성이 되는 등 여러 층위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때 그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어떤 층위를 거쳐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복합어	단어의 결합 방식
①	재주꾼	어근 '재주'에 접미사 '-꾼'을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들었습니다.
②	살얼음	어근 '살-'에 어근 '얼-'을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고, 이 합성어의 어근에 접미사 '-음'을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들었습니다.
③	도움말	어근 '돕-'에 접미사 '-음'을 결합한 파생어를 만들고, 이 파생어에 어근 '말'을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④	민물고기	접두사 '민-'과 어근 '물'을 결합한 파생어를 만들고, 이 파생어에 어근 '고기'를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⑤	접이문(門)	어근 '접-'에 접미사 '-이'를 결합한 파생어를 만들고, 이 파생어에 한자어 어근 '문'을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21004-0031]

03 <보기>는 품사 통용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품사 통용이 나타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즉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품사 통용은 대체로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문장에서의 쓰임을 파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말에는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와 동사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고, 의존 명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조사, 명사 등의 다른 품사로도 사용되는 경우,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조사 또는 명사로도 사용되는 경우, 명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감탄사로도 사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

- ① 시간이 정말 물과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
학교 뒤뜰에 눈같이 흰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 ② 그 독립투사는 끝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셨다.
축구 경기에서 우리 학교가 우승하자 모두 만세를 불렀다.
- ③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너밖에 없다.
실내에 사람이 많으니 우리는 밖에 있자.
- ④ 날씨가 이렇게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그 신발은 크지 않아서 내 동생이 신기에 적당하다.
- ⑤ 그 시험은 선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는 대궐만큼 크게 지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21004-0032]

04 <보기>를 바탕으로 보조 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는 대체로 하나의 용언이나 ‘체언+이다’의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둘 이상의 용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장 앞에 놓인 용언이 핵심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뒤에 이어지는 용언이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 앞에 놓이는 용언을 본용언, 뒤에 이어지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 (1) ㄱ. 나는 배가 고파서 식탁 위의 빵을 다 먹어 버렸다.
 ㄴ. 나는 배가 고파서 식탁 위의 빵을 다 *먹어서 버렸다.
 ㄷ.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는 모두 이곳에 모아서 버리자.
- (2) ㄱ. 우리는 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
 ㄴ. 우리는 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를 *있다.
- (3) ㄱ. 영희는 신을 신어 보았다.
 ㄴ. 영희는 지금 집에서 그림을 보고 있다.
 ㄷ. 영희는 집에서 언제나 운동복을 입고 있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1)-ㄱ과 (1)-ㄴ으로 미루어, 본용언의 어간에 연결 어미 ‘-아서/-어서’가 결합한 뒤에 보조 용언이 이어지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 ② (1)-ㄱ과 (1)-ㄷ으로 미루어, 동일한 보조 용언이 문맥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 ③ (2)-ㄱ과 (2)-ㄴ으로 미루어, 본용언을 생략하고 보조 용언만 사용하면 올바른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3)-ㄱ과 (3)-ㄴ으로 미루어,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 따라 본용언으로도 쓰이고, 보조 용언으로도 쓰인다.
- ⑤ (3)-ㄴ과 (3)-ㄷ으로 미루어, 보조 용언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한다.

[21004-0033]

05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용언을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활용한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어간이 ‘ㄹ’로 끝날 때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리’ 등이 이어지면 어간의 끝 ‘ㄹ’이 탈락하거나 ‘ㄹ’ 중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 ‘ㄹ’ 탈락, 어간이 ‘ㄷ’로 끝날 때 일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지면 어간의 끝 ‘ㄷ’가 탈락하는 ‘ㄷ’ 탈락은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불규칙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변하는 것. 어간이 변하는 경우, 어미가 변하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다.
 - ① 예 ‘리’ 불규칙: 어간이 ‘ㄹ’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간 뒤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경우
 - ② ‘르’ 불규칙: 어간이 ‘ㄹ’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ㄹ’가 ‘ㄹㄹ’ 형태로 변하는 경우

우리말에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어간에 ‘-고’, ‘-지’, ‘-(으)니’, ‘-아/-어’, ‘-아서/-어서’, ‘-아라/-어라’ 등의 어미를 붙여 변화의 유형을 통해 판단한다. 이때 어간이나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면 규칙 활용, 다른 모습을 보이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① 이르다: 선생님께서 내일 모일 시간을 (이르- + -어) 주셨다.
→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므로 ‘일러’가 됩니다.
- ② 들르다: 나는 오는 길에 서점에 (들르- + -어서) 책을 샀다.
→ ‘ㄷ’ 탈락이 일어나는 규칙 활용이므로 ‘들러서’가 됩니다.
- ③ 치르다: 선생님 도움으로 오늘 행사를 무사히 (치르- + -었습니다).
- ‘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므로 ‘치르렀습니다’가 됩니다.
- ④ 가물다: 여름 내내 (가물- + -니) 올해의 농사가 무척 걱정된다.
→ ‘ㄹ’ 탈락이 일어나는 규칙 활용이므로 ‘가무니’가 됩니다.
- ⑤ 누르다: 나뭇잎이 무척 (누르- + -어) 보이니 가을이 다가온 것 같다.
→ ‘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므로 ‘누르러’가 됩니다.

[21004-0034]

01 <보기>의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복합어]

[분류 과정]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복합어인가? ⇨

↓ 예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형태소가 결합되었는가? ⇨

↓ 예

	㉠	㉡
①	강물, 깨물다	밀치다, 풋사랑
②	강물, 깨물다	웃음, 지우개
③	지우개, 풋사랑	밀치다, 웃음
④	밀치다, 풋사랑	웃음, 지우개
⑤	밀치다, 풋사랑	강물, 깨물다

[21004-0035]

02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만났던 사람을 구태여 밝히지 않으려 하며) “㉠누구를 만나느라고 조금 늦었어.”
- (문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밖에서 어슬렁대는 사람 ㉡누구요?”
- (할아버지께 벌을 받고 있는 동생에게)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 거야.”
- (만나기로 한 친구들을 기다리며) “약속 시간이 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 (누구에게 일을 맡길지 고민하는 상사에게) “이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 ① ㉠은 가리키는 대상을 굳이 밝혀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된다.
- ② ㉡은 조사사 ‘도’가 결합되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 ③ ㉢은 ㉠과 달리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 ④ ㉣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사용된다.
- ⑤ ㉠~㉣은 모두 물건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에 해당한다.

[21004-0036]

03 <보기>의 밑줄 친 조사를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그는 교사로써 책임감을 다했던 사람이다.
- ㄴ. 갑작스러운 폭풍우로 농작물이 떠내려갔다.
- ㄷ. 네가 읽은 편지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 ㄹ. 이 식물은 뿌리가 위에서 아래에게 자란다.
- ㅁ. 정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 ① ㄱ의 ‘로써’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니 ‘로서’로 바꾸어야겠어. ‘로서’가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 쓰이잖아.
- ② ㄴ의 ‘로’는 적절한 표현이지만 ‘에’로 바뀌도 되겠어. 둘 다 어떤 일의 원인을 나타낼 때 쓰이잖아.
- ③ ㄷ의 ‘에게서’는 적절한 표현이지만 ‘로부터’로 바뀌도 되겠어. 둘 다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쓰이잖아.
- ④ ㄹ의 ‘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니 ‘로’로 바꾸어야겠어. ‘로’가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낼 때 쓰이잖아.
- ⑤ ㅁ의 ‘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니 ‘에서’로 바꾸어야겠어. ‘에서’가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장소를 나타낼 때 쓰이잖아.

[21004-0037]

04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다음을 통해 ‘그’와 ‘저’의 쓰임에 대해 설명해 보자.

- 아주머니, ㉠그 책을 제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생각건대 ㉡그는 당신에게 누구보다 훌륭한 오빠입니다.
-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것,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었다.
- 시동생은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서 문제였다.
- 총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 ① ㉠: 말하는 이 쪽에 가까이 있는 ‘책’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말이군.
- ② ㉡: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아닌 제삼자인 ‘오빠’를 가리키는 말이군.
- ③ ㉢: 앞에서 이미 언급된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이군.
- ④ ㉣: 앞에서 이미 언급된 ‘시동생’을 가리키는 말이군.
- ⑤ ㉤: 말하는 이가 ‘총장’을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군.

[21004-0038]

05 <보기>에 제시된 [활동]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을 참고하여 고유 명사 ‘월곶’, ‘울릉’, ‘영동’, ‘광희문’, ‘대관령’을 로마자로 표기해 보자.

1. 모음과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모음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ㅕ	ㅛ	ㅠ	ㅜ	ㅠ	ㅜ	ㅠ	ㅜ	ㅠ
a	eo	o	u	eu	i	ae	ya	yeo	yo	yu	wa	wo	ui					

* ‘ㅣ’는 ‘i’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그리고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2) 자음

ㄱ	ㅋ	ㄷ	ㅌ	ㅂ	ㅍ	ㅎ	ㄴ	ㅁ	ㅇ	ㄹ
g, k	k	d, t	t	b, p	p	h	n	m	ng	r, l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그리고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2.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① 월곶[월곶]: Wolgot
- ② 울릉[울릉]: Ulleung
- ③ 영동[영동]: Yeongdong
- ④ 광희문[광희문]: Gwanghimun
- ⑤ 대관령[대:관령]: Daegwallyeong



언어 03 단어 ①

20003-0175

0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활동을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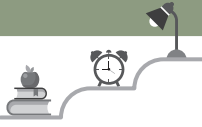
보기 1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단어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 가령, '입'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동시에 하나의 단어인 경우도 있고, '높이'처럼 '높-', '-이'의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형태소와 단어로 분석해 보자.

마당을 깨끗하게 치웠다.

	형태소	단어
마당을	마당, 을	마당, 을
깨끗하게	㉠	㉡
치웠다	치우-, -었-, -다	치웠다

	㉠	㉡
①	깨-, 깨끗-, -하-, -게	깨끗, 하게
②	깨끗-, -하-, -게	깨끗, 하게
③	깨끗-, -하-, -게	깨끗하게
④	깨끗-, -하게	깨끗, 하게
⑤	깨끗-, -하게	깨끗하게



20003-0176

0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말 어미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어미는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구분되고, 어말 어미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다음 예문을 보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 ㉠ 형은 신발을 샀다.
- ㉡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 ㉢ 항상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 ㉣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 학교에 갔다.
- ㉤ 꽃이 피는 계절이 왔다.

학생: (가)

- ① ㉠의 ‘샀다’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있습니다.
- ② ㉡의 ‘아파서’에는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③ ㉢의 ‘되어라’에는 문장을 끝내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④ ㉣의 ‘하고’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⑤ ㉤의 ‘피는’에는 용언을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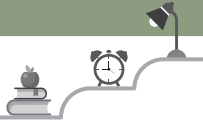
20003-0177

0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다른 합성어들과 마찬가지로, 합성 부사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의 품사는 다양하다. 합성 부사는 그 구성 성분에 부사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나 ‘반짝반짝’과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가 중첩하여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은 구성 성분 가운데 부사가 있는 합성 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를 구성 성분으로 갖지 않는 합성 부사 유형으로는 ‘밤낮’과 같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유형이나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 | ㉠ | ㉡ |
|---|-----------|-----------|
| ① | 이것저것, 잘못 | 어느새, 골고루 |
| ② | 잘못, 또다시 | 한바탕, 이른바 |
| ③ | 죄다, 또다시 | 오랫동안, 골고루 |
| ④ | 오늘날, 이것저것 | 이른바, 어느새 |
| ⑤ | 오늘날, 죄다 | 오랫동안, 한바탕 |



20003-0178

04 ㉠과 ㉡으로 쓰인 다의어의 예문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모두 갖는 경우가 있다. 가령 ‘학교 앞 네거리’에서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갖는 반면, ‘앞으로 조심해!’라는 문장에서 ‘앞’은 ‘장차 올 시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갖는다. 이는 공간적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다른 언어들에서도 확인되는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모두 갖는 경우 이 단어는 보통 다의어로 처리된다.

- ① [㉠ 네 뒤에 오토바이가 오니 조심해.
 ㉡ 동생은 일기장 뒤에 날짜를 적었다.
- ② [㉠ 돌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른다.
 ㉡ 힘든 일 중에도 잠시 실 틈이 났다.
- ③ [㉠ 우리 마을 위에는 큰 강이 있다.
 ㉡ 우리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 ④ [㉠ 대전은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다.
 ㉡ 친구 사이에도 가려야 할 말이 있다.
- ⑤ [㉠ 강 가운데 배가 떠 있다.
 ㉡ 많은 꽃들 가운데 누나는 코스모스를 좋아한다.

20003-0179

05 밑줄 친 단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자어는 고유어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말 안에서 공존하여 오는 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 개의 고유어와 둘 이상의 한자어들이 폭넓은 대응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유어는 그 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한자어와 대응된다.

오래된 부엌을 신식으로 <u>고침</u> .	➔	개량(改良) ①
낡은 옷을 새 옷처럼 <u>고침</u> .	➔	수선(修繕) ②
계획을 대폭 <u>고침</u> .	➔	쇄신(刷新) ③
이 병원은 병을 잘 <u>고침</u> .	➔	치료(治療) ④
잘못된 버릇을 <u>고침</u> .	➔	교정(矯正) ⑤



20003-0180

01 <보기>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이들의 품사를 정확히 구분하려면 문장에서 이들 단어들의 쓰임이나 기능, 의미 등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를 살펴보자.

(가) [그대여! ㉠그 마음 변치 마오.
㉡그가 목소리를 높여 연설하기 시작했다.

(나) [모두 웃고만 있을 ㉠뿐이지 말이 없었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다) [약속 시간이 ㉠언제였더라.
시간이 나면 ㉡언제 만납시다.

(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동생은 세 번 ㉡만에 시험을 통과했다.

(마)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다섯 사람이 한 차에 타기는 어렵다.

- ① (가): ㉠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은 격 조사와 결합하고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이다.
- ② (나): ㉠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격 조사와 결합한 의존 명사이고, ㉡은 앞말과 붙여 쓰는 조사이다.
- ③ (다): ㉠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이고, ㉡은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④ (라): ㉠은 앞말과 붙여 쓰는 조사이고, ㉡은 횟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다.
- ⑤ (마): ㉠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이고, ㉡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0003-0181

02 (가)를 참고하여 (나)의 활동을 할 때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 결합 제약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은 동사에만 결합하고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못함.
-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는 동사와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못함.
- 감탄형 어미 '-아라/-어라'는 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하고 형용사와만 결합함.
-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만 결합하고,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못함.
-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으러'나 의도의 '-고자'는 동사에만 결합하고,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못함.

(나)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해 보자.

- ㉠ 오늘 분위기에 걸맞은 옷을 입어라.
- ㉡ 그녀는 머리가 잘 기는 편이다.
- ㉢ 지금은 동생이 형보다 키가 크다.
- ㉣ 매일 새로워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 ㉤ 세상에, 딱하고 가없어라.

- ① ㉠: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걸맞다'에 결합하지 못하므로 '걸맞은'은 형용사이다.
- ② ㉡: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길다'에 결합했으므로 '기는'은 동사이다.
- ③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크다'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크다'는 형용사이다.
- ④ ㉣: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고자'가 '새로워지다'에 결합했으므로 '새로워지고자'는 동사이다.
- ⑤ ㉤: 명령형 어미 '-어라'가 '가없다'에 결합했으므로 '가없어라'는 동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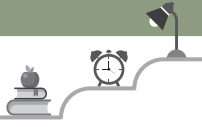
20003-0182

03 <보기>의 (가)~(마)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 당국에서 건축 경제 정책을 폈다.
 ㉡ 운동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 (나) ㉠ 그가 책임자가 아니다.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다) ㉠ 침묵은 금이다.
 ㉡ 그는 솜씨가 제법이다.
- (라) ㉠ 산에는 눈이 내린다.
 ㉡ 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
- (마) ㉠ 개는 늑대와 비슷하다.
 ㉡ 고모는 개와 늑대를 무서워한다.

- ① (가): ‘에서’는 주격 조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 ② (나): ‘가’와 ‘이’는 주격 조사로도 쓰이고 보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 ③ (다): ‘이다’는 명사와도 결합하고 부사와도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 ④ (라): ‘에’는 보조사와도 결합하고 격 조사와도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 ⑤ (마): ‘와’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고 접속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20003-0183

04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발음은 같으나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동음이의어는 단어의 발음과 단어의 형태, 즉 철자까지 같은 경우와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경우로 구분된다. 예컨대 ‘배[服]’와 ‘배[舟]’는 철자와 발음이 모두 같은 동음이의어인 반면, ‘걸음’과 ‘거름’은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동음이의어이다. 한편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우리말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도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가 발견된다. ‘저기 풀을 먹는 [소는] 우리 집 소다.’에서 [소는]은 ‘소[牛]+는’이지만, ‘친구 손을 잡은 내 [소는] 떨렸다.’에서 [소는]은 ‘손[手]+은’인 것이다. 또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에서도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 ① [가는] 빗줄기가 종일 내린다.
[저기 받을 [가는] 동생이 보인다.
- ② [예심을 [거친] 동생은 본선에 진출했다.
[중학교를 [거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 ③ [친구 집에서 며칠 [묵꼬] 다시 길을 나섰다.
[아이는 나무에 염소를 [묵꼬] 풀밭에 누웠다.
- ④ [그 환자는 회복이 [느린] 편이다.
[고모는 길이를 [느린] 바지를 입었다.
- ⑤ [병뚜껑이 너무 꼭 [다쳐서] 열 수가 없다.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20003-0184

0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띄어쓰기가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못 하다’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 ‘못’과 동사 ‘하다’가 결합한 구이고 ‘못하다’는 한 단어이다. ‘못 하다’와 ‘못하다’는 그 구별이 쉽지 않은데, ‘철수는 어제 노래를 못 했다.’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반면, ‘철수는 어제 노래를 못했다.’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했으나 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못하다’는 동사로 쓰일 때와 보조 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유사하여 구별이 어려운데, 연결 어미 ‘-지’ 뒤에 쓰인 ‘못하다’는 보조 동사로 보이면 된다. 이처럼 다양한 ‘못하다’의 쓰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품사	의미
못하다	동사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형용사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조 동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보조 형용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

|보기 2|

친구 1: 이제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기까지 하네.

친구 2: 그러게. 너무 오래 기다렸다. 줄 선 손님이 아무리 ㉡못 해도 10명은 되었던 것 같아.

친구 1: (음식을 먹으며) 이거 왜 이렇게 맵니. (기침)

친구 2: 얼마나 매우면 말을 잊지도 ㉢못 하니?

친구 1: 그런데 이 식당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9003-0175

0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활동을 할 때,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문법 단위를 말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 형태소는 자립성이 있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형태소가 갖는 의미에 따라 형태소를 분류할 수도 있는데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보기 2」

※ 다음 문장에서 분석되는 형태소를 써 보고,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아이가 마당에 앉아 있다.

- (1) 분석되는 형태소: ㉠
- (2) 형태소의 분류: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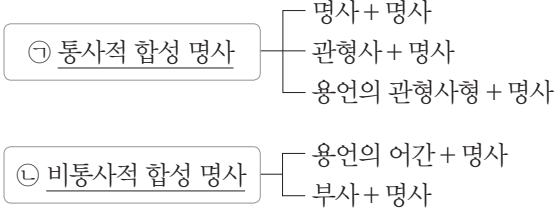
- ① ㉠에 들어갈 형태소는 모두 8개이다.
- ② ‘아이’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③ ‘앉-’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④ ‘에’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⑤ ‘-다’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9003-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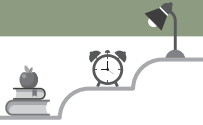
02 (가)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나)에서 골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우리말 합성 명사는 그 구성 성분의 배열 방식이 일반적인 우리말 구성 방식과 같은지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 명사와 비통사적 합성 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 명사는 두 어근의 배열 방식이 일반적인 구와 동일하고, 비통사적 합성 명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접갈, 검버섯, 굳은살, 산나물, 산들바람, 늪은이, 새해

- | | ㉠ | ㉡ |
|---|-----------|-----------|
| ① | 검버섯, 늪은이 | 산나물, 산들바람 |
| ② | 산나물, 산들바람 | 접갈, 검버섯 |
| ③ | 굳은살, 산나물 | 접갈, 산들바람 |
| ④ | 검버섯, 새해 | 굳은살, 늪은이 |
| ⑤ | 늪은이, 산나물 | 검버섯, 새해 |



9003-0177

03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직접 구성 요소란 직접 성분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어떤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를 보고 그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가령 ‘금목걸이’의 직접 구성 요소인 ‘금’과 ‘목걸이’는 모두 어근이므로 ‘금목걸이’는 합성어이다. 그런데 ‘금목걸이’를 어근 ‘금목걸-’과 접미사 ‘-이’로 잘못 분석하면 ‘금목걸이’는 파생어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㉔ 직접 구성 요소로 접미사를 올바르게 분석한 경우에만 파생어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다. 단어의 구조와 종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① ‘놀이터’를 ‘놀이’와 ‘터’로 분석하였다.
- ② ‘비웃음’을 ‘비웃-’과 ‘-음’으로 분석하였다.
- ③ ‘눈웃음’을 ‘눈웃-’과 ‘-음’으로 분석하였다.
- ④ ‘코웃음’을 ‘코웃-’과 ‘-음’으로 분석하였다.
- ⑤ ‘야채볶음’을 ‘야채볶-’과 ‘-음’으로 분석하였다.



9003-0178

04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기’는 동일한 형태로 접미사 혹은 어미로 쓰일 수 있다.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품사의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어미는 새로운 품사의 단어를 만들 수 없다. 다음 예에서 ㉠은 ‘달리-’에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인 반면, ㉡은 ‘달리-’에 어미 ‘-기’가 붙었으나 여전히 동사이다. ㉠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만, ㉡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것에서 이들의 품사를 알 수 있다.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보기 2

- 저와 함께 ㉢출을 추시겠어요?
- 장군은 호탕하게 크게 ㉣웃음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 아무리 ㉤잠을 쫓으려 해도 눈이 감졌다.
- 동생이 일기에 “그림을 ㉥그림.”이라고 썼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003-0179

05 <보기>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립성이 없어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고는 문장에서 쓰이지 못하는 의존 명사는 격 조사와 의 결합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약에 따라, 의존 명사는 특정 격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어 특정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는 것과 그러한 제약 없이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의존 명사 ‘바’는 여러 격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일 수 있다.

- 주어: 내가 생각한 바가 이루어졌다.
- 목적어: 평소 느낀 바를 말해라.
- 서술어: 그것은 내가 바라던 바이다.
- 부사어: 내가 알던 바와 다르다.

특정 격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의존 명사는 주어로만 쓰이는 것, 서술어로만 쓰이는 것, 부사어로만 쓰이는 것 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 ① 의존 명사 ‘뿐’은 ‘나는 열심히 공부할 뿐이다.’와 같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 ② 의존 명사 ‘수’는 ‘집에 갈 수 있다.’와 같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 ③ 의존 명사 ‘것’은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일 수 있다.
- ④ 의존 명사 ‘때문’은 목적어로 쓰일 수 없다.
- ⑤ 의존 명사 ‘줄’은 주어로 쓰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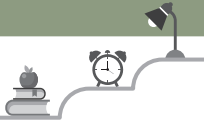
9003-0180

0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문법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동생이 집에 있다.’와 ‘누나가 집에 있다.’라는 문장에서 ‘이’와 ‘가’는 동일한 주격 조사이다. 다만 결합하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이처럼 ㉠ 모습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를 잘 고려하여 형태소를 따져야 한다.

- ① 동생은 책을 읽었다.
동생은 편지를 읽었다.
- ② 공을 막아 보아라.
공을 집어 보아라.
- ③ 누나는 음악을 들었다.
누나는 동생에게 우유를 먹였다.
- ④ 사과와 배를 가지고 오너라.
책과 연필을 가지고 오너라.
- ⑤ 오빠는 잠을 잔다.
형은 잠을 잔다.



9003-0181

02 ㉠~㉤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용언 어간	-고	-아/-어
㉠	무겁-	무겁고	무거워
㉡	듣-	듣고	들어
㉢	이르-	이르고	이르러
㉣	파랗-	파랗고	파래
㉤	짓-	짓고	지어

┃ 보기 ┃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어미만 교체되며 어미는 모든 어간에 공통되는 형식으로 결합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벗어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모두 바뀌는 유형, ㉡어간의 모양만 바뀌는 유형, 어미의 모양만 바뀌는 유형이 그것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9003-0182

03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로01 「의존 명사」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 들은 대로 이야기하다.

「2」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3」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즉.

¶ 틈나는 대로 찾아 보다.

「4」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지칠 대로 지친 마음.

「5」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다.

대로02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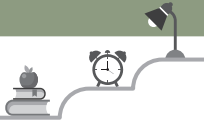
「1」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① ‘대로01’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 ② ‘대로01’은 관형사절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 ③ ‘대로02’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 ④ ‘대로02’는 뒤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있다.
- ⑤ ‘대로01’과 ‘대로02’는 각각 다의어이다.



9003-0183

04 <보기>는 조사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들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격 조사는 다른 말 뒤에 붙어 그 말과 문장의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데, 동일한 격 조사라도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격 조사 ‘으로/로’는 다른 말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로 기능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1) 원인: (㉠)
- 2) 재료: 열음으로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
- 3) 도구: 아저씨는 붓으로 글씨를 쓰신다.
- 4) 변화의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 5) 자격: (㉡)
- 6) 방향: 우리는 지금 대전으로 간다.

- ① [㉠: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났다.
 ㉡: 우리는 그를 대표로 뽑았다.
- ② [㉠: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다.
 ㉡: 그들은 갈등을 대화로 해결했다.
- ③ [㉠: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났다.
 ㉡: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다.
- ④ [㉠: 그들은 갈등을 대화로 해결했다.
 ㉡: 우리는 그를 대표로 뽑았다.
- ⑤ [㉠: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났다.
 ㉡: 그들은 갈등을 대화로 해결했다.

9003-0184

05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반의 관계란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의미가 대립되는 관계를 말한다. 반의 관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어떤 개념을 상호 배타적으로 양분하는 관계.

- 이 관계에는 중간 개념이 없고 한 개념이 이 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있다-없다'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있다'와 '없다' 사이에는 중간 개념이 없고, 어떤 대상의 존재는 '있다'와 '없다'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상대적 정도 개념의 양 극단을 나타내는 관계.

- 이 관계에는 중간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딴다-줍다'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딴지도 않고 줍지도 않은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

(다) 상호 의존적으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관계.

-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존적이어서 한 개념만은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개념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 ① '출석-결석'은 (가) 유형의 반의 관계이다.
- ② '판매-구매'는 (가) 유형의 반의 관계이다.
- ③ '넓다-좁다'는 (나) 유형의 반의 관계이다.
- ④ '오른쪽-왼쪽'은 (다) 유형의 반의 관계이다.
- ⑤ '가르치다-배우다'는 (다) 유형의 반의 관계이다.

8003-0172

01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 ㉠과 ㉡으로 쓰인 것을 순서대로 묶은 것은?

(보기)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의 형태가 같을 경우에는 각각이 ㉠ ‘어근’으로 쓰였는지 ㉡ ‘접사’로 쓰였는지를 잘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들개’에 대하여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이르는 말인 ‘집개’에 쓰인 ‘개’는 포유류 가축의 일종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인 반면, 글씨나 그림 따위를 지우는 물건을 뜻하는 ‘지우개’에 쓰인 ‘-개’는 어근에 붙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 ① [햇볕에 새까맣게 탄 그의 얼굴이 건강해 보였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었다.
- ② [우리는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는 침뿌리를 짓이겨서 즙을 내서 마셨다.
- ③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뭇잎이 공중에서 휘돌다가 마당에 떨어졌다.
- ④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막살아서야 되겠니?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 ⑤ [바닥에 들붙은 껌을 떼어 내는 게 쉽지 않았다.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8003-0173

02 ㄱ~ㅁ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두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이다. 이러한 접두사의 예로는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시퍼렇다’의 ‘시-’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형태의 접두사라도 고유어로 된 것이냐 한자어로 된 것이냐 등에 따라 다양한 뜻을 지니게 되므로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어떠한 의미의 접사가 쓰였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같은 형태의 몇몇 접두사가 다양하게 쓰이는 예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접두사	뜻	응례
강-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ㄱ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	ㄴ
강(強)-	‘매우 센’ 또는 ‘호된’	ㄷ
외-	‘혼자인’ 또는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	ㄹ
	‘홀로’	산골에 두 집만이 <u>외떨어져</u> 있다.
외(外)-	‘밖’이나 ‘바깥’	ㅁ
	‘모계 혈족 관계인’	나는 지금 <u>외할머니</u> 를 <u>뵈러</u> 간다.

- ① ㄱ: 오늘도 김 씨는 빈속에 안주는 하나도 없이 강술을 마셨다.
- ② ㄴ: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강기침을 했다.
- ③ ㄷ: 우리 팀은 타율이 매우 높은 강타자가 많아 다른 팀의 부러움을 샀다.
- ④ ㄹ: 그 여자는 머리를 외갈래로 땡았는데, 예전의 쌍갈래보다 좋아 보였다.
- ⑤ ㅁ: 어머니의 남동생 세 분 중에 한 분만 결혼을 해서 외숙모는 한 분밖에 없다.



8003-0174

03 [가]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동사와 형용사의 올바른 쓰임에 주의하여 이번 학기 급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에는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가 붙을 수 있는 반면에 형용사에는 이러한 어미가 붙지 못한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급훈을 잘 만들었는지 다 함께 살펴볼까요?

- 항상 푸른 나무처럼 꿈을 ㉠ 지너라.
- 내일을 대비하는 개미처럼 ㉡ 부지런해라.

여러분이 만든 급훈 중에서 ㉠은 동사에 명령형 어미가 쓰인 예이고 ㉡은 형용사에 명령형 어미가 쓰인 예인데, ㉠처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평소 언어생활에서는 ‘부지런해져라’처럼 써야 해요. 이처럼 적절하지 않은 활용형을 사용한 급훈을 고친 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 적절하지 않은 예와 적절하게 고친 예로는 [가] 를 들 수 있어요.

- 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모두 함께 기쁘자. → 기뻐하자
- ② 하루에 한 걸음씩,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자. → 새로워지자
- ③ 웃는 얼굴 고운 마음, 우리 좀 더 아름답자. → 아름다워지자
- ④ 한 송이 꽃처럼 예쁜 마음, 지금보다 더 예뻐라. → 예뻐져라
- ⑤ 친구를 향한 너의 마음, 생각만으로도 놀라워라. → 놀라워져라

8003-0175

04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형용사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간 끝에 ‘ㅎ’ 받침을 가진 형용사는 ‘좋다’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좋다’ 이외의 단어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는 ‘-애/-에’로 나타난다.
- ‘으’ 같은 매개 모음이 붙으면 ‘ㅎ’이 탈락하고 매개 모음도 탈락한다.
-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는 활용형(예: 파랑-+-네 → 파라네)과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예: 파랑-+-네 → 파랑네)을 복수 표준형으로 인정한다.

‘좋다’의 활용 예	‘좋다’ 이외의 단어의 활용 예
좋-+-아서 → 좋아서	노랑-+-아서 → 노래서
좋-+-았-+-다 → 좋았다	노랑-+-았-+-다 → 노랬다
좋-+-으니 → 좋으니	노랑-+-으니 → 노라니
좋-+-네 → 좋네	노랑-+-네 → 노라네(○), 노랑네(○)

	형용사	문장에서 사용된 예
①	그렇다	상황이 <u>그러니</u> 어찌할 도리가 없어.
②	조그맣다	오늘 수확한 열매가 그렇게 <u>조그맣니</u> 많이 속상하겠구나!
③	커다랗다	그는 몸집이 매우 <u>커다래서</u> 옷도 큰 걸 산다.
④	둥그랗다	빵이 생각보다 훨씬 <u>둥그랗네</u> .
⑤	허엿다	밤새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u>허여네</u> .



8003-0176

05 <보기>의 ㄱ~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고유어와 한자어는 의미상 대응 관계를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의 고유어나 한자어에 여럿의 한자어나 고유어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치다’라는 고유어에는 한자어 ‘교정(矯正)하다’, ‘치료(治療)하다’, ‘변경(變更)하다’, ‘개혁(改革)하다’ 등의 여러 단어가 대응된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보이는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한 단어	대응되는 단어
ㄱ	입다, 쓰다, 신다, 끼다
ㄴ	익히다, 삶다, 데치다, 쭈다
ㄷ	퀘매다, 박다, 시치다, 감치다
ㄹ	판단(判斷)하다, 기억(記憶)하다, 사고(思考)하다, 추측(推測)하다
ㅁ	처리(處理)하다, 사용(使用)하다, 취급(取扱)하다, 상대(相對)하다

- ① ㄱ: 착용(着用)하다
- ② ㄴ: 요리(料理)하다
- ③ ㄷ: 접착(接着)하다
- ④ ㄹ: 생각하다
- ⑤ ㅁ: 다루다



03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표기된 파생어만을 묶은 것은?

(보기)

학생: 선생님, ‘아님, 아니함, 어긋남’을 뜻하는 접사인 ‘불(不)-’은 어떤 파생어에서는 ‘부(不)-’로 쓰이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쓰이나요?

선생님: 이렇게 달리 쓰이는 것은 격 조사인 ‘이’와 ‘을’이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쓰이고 ‘가’와 ‘를’이 받침이 없는 말 뒤에 쓰이는 것과 비슷한데, 국어에는 앞뒤에 오는 음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不)-’과 ‘부(不)-’는 뒤에 오는 음운이 무엇이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부(不)-’는 ‘ㄷ’, ‘ㅈ’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 붙어서 ‘부도덕’, ‘부정확’처럼 파생어를 만들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는 다음의 조건에서 네 가지로 실현되어 파생어를 만들지요.

접두사	뒷말의 첫음절의 소리상 특징	
	뒷말의 첫음절의 초성	뒷말의 첫음절의 중성
새-	거센소리, 된소리, ‘ㅎ’	양성 모음 ‘ㅏ, ㅑ’
셋-	울림소리	양성 모음 ‘ㅏ, ㅑ’
시-	거센소리, 된소리, ‘ㅎ’	음성 모음 ‘ㅓ, ㅕ’
싯-	울림소리	음성 모음 ‘ㅓ, ㅕ’

- ① 부균형, 셋까맣다, 시빨겉다, 시멸겉다
- ② 부자유, 시꺼멧다, 새노랗다, 시뿌엷다
- ③ 불성실, 새뽕얇다, 시퍼렇다, 시빨깁다
- ④ 불완전, 셋카맣다, 시커멧다, 싯누렇다
- ⑤ 불명예, 새하얇다, 셋말깁다, 시허엷다

8003-0180

0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 ㉡에 들어갈 적절한 예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같은 형태의 격 조사라도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에는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조사 '에게'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다양한 용례를 알 수 있다.

에게 「조사」(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1」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낸다.

(_____ ㉠ _____)

「2」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는 철수에게 초대장을 주었다. / 친구가 나에게 공책을 건넸다.)

「3」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_____ ㉡ _____)

- ① [㉠: 철수에게는 유산으로 받은 돈이 정말로 많았다.
㉡: 언니에게 보낼 물건을 챙겨 보니 꽤 많더라.
- ② [㉠: 나는 서둘러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렸다.
㉡: 철수는 삼촌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했다던데.
- ③ [㉠: 과연 우리에게 재고품이 더 있는지 궁금하게 됐다.
㉡: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 ④ [㉠: 너에게 노란색 색연필이 두 개나 있니?
㉡: 키우던 개에게 손을 물린 주인이 뉴스에 나왔다.
- ⑤ [㉠: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내가 맡았었다.
㉡: 나에게 약간의 돈이 있으니 네게 빌려줄게.



05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8003-0181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하고, 다의어(多義語)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한다. 형태가 같은 단어라도 동음이의어로 봐야 할지, 다의어로 봐야 할지를 사전에 제시된 정보 등을 통해 잘 따져 봐야 한다.

다리⁰¹ 「명사」

- 「1」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 ㉠
- 「2」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 …………… ㉡
- 「3」 오징어나 문어 따위의 동물의 머리에 여러 개 달려 있어, 해엄을 치거나 먹이를 잡거나 촉각을 가지는 기관. …………… ㉢
- 「4」 안경의 테에 붙어서 귀에 걸게 된 부분.

다리⁰² 「명사」

- 「1」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이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 ㉣
- 「2」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 「3」 중간에 거쳐야 할 단계나 과정.
- 「4」 지위의 등급.

- ① ㉠의 예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각각 두 개씩 있다.”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다의어가 쓰인 예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 네가 다리가 되어 주렴.”을 들 수 있다.
- ② ㉡의 예는 “이 안경은 다리 하나가 없다.”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다의어가 쓰인 예는 “그는 사 년 만에 벼슬이 한 다리가 올랐다.”를 들 수 있다.
- ③ ㉢의 예는 “그는 술안주로 오징어 다리를 즐겨 먹었다.”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다의어가 쓰인 예는 “나는 다리가 부러진 책상을 고치러 갔다.”를 들 수 있다.
- ④ ㉣의 예는 “이 물건은 우리에게 오는 데 다리를 여럿 거친 것이다.”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동음이의어가 쓰인 예는 “그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 물건을 잘 팔았다.”를 들 수 있다.
- ⑤ ㉤의 예는 “촌장은 우리 마을과 바깥세상을 이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했다.”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동음이의어가 쓰인 예는 “말이라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다리를 넘어서 오면 부풀려지게 된다.”를 들 수 있다.